

# Hard Times에 나타난 내재적 개혁성

박 정 길\* · 김 기 목\*\*

## I

18세기 영국의 빅토리아시대는 중세 봉건적 질서가 와해되고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던 변혁의 시대였던 만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안고 있던 시기였다. 생산 기술상의 혁신 및 물질적 풍요와 함께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회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기존의 생산체계의 본질을 모든 측면에서 바꾸어 놓았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는 부의 증대와 더불어 인류 역사의 진보에 대한 낙관적 확신을 심어준 반면 자본주의적 경제논리에 기반한 부르주아의 가혹한 착취는 인간의 기계화와 함께 민족문화 고유의 전통적 가치를 현저하게 파괴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취약하여 고통을 직접적으로 입은 계층은 당연히 노동자였다. 특히 공장제 생산은 생산을 직접하고 교통의 발달을 촉진하여 노동자를 통합시켰으나 동시에 분업과 실업으로 인해 노동자를 분열시켰다. 낮은 임금과 장시간노동, 기계에 밀려나 단순한 노동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노동자는 기술적, 사회적으로 종속되어 버렸다(Marx 645). 한편, 당시 사상적 표현으로 정치·법률·경제 등의 여러 제도의 민주적 개혁에 크게 이바지한 공리주의 사상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의 근간이 되어 사회 제분야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는가 하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영리추구를 보장하는 자유방임(Laissez-faire)주의와 영합하여 시장원리의 경제성을 옹호하였다. 중세의 봉건적 구속과 불합리성에서부터 영국민을 해방시켰던 이 사상은 애석하게도 산업경제가 파생시킨 무절제한 자유경쟁과 이윤추구의 집착을 통해 부유한 고용주와 가난한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끝내 치유하지 못한 채 단지 계산과 평균산출에만 집착한 사람들의 판단기준으로서 이 시대의 가장 사악한 가치체제로 전락해 버렸다.

이러한 비정한 시기에 봉착하여 많은 지식인들은 심각한 현실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바람직한 처방을 제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 중 당시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가 찰스 디킨즈는 산업현장에 대한 기계화된 혹독한 노동환경을 매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영어과 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과정

우 밀도있게 묘사하고 당시 사회의 병폐상을 심도있게 그려내어 빅토리아시대 문명을 충실히 대변한 작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당시 산업주의로 인해 발생한 인간소외에 대한 그의 깊은 성찰과 그 회복에 대한 갈망은 대중적 호소력과 풍부한 예술성을 겸비한 작품구조아래 성공적으로 투영되고 있다.

빛나간 사회제도와 억압적인 국가체계에 대한 디킨즈의 반향이 그의 여타 작품보다 더욱더 차별적으로 부각된 『어려운 시절』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쟁적 시장원리에 삶을 강요당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그린 사회성이 강한 작품으로 노동문제와 공리주의의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시대의 불안정한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 작품은 사회의 추악한 풍조를 제재로 하여 타산적으로 자기이권만 찾는 속된 인간상을 고발하는 한편 인간의 참된 덕성을 통한 내면적 각성을 일으키게 하는 디킨즈의 잠재적 개혁성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산업혁명이 강제한 생활상의 전반적인 위기를 다루는 세태를 상징하는 작품의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 작품은 디킨즈의 감수성과 시각이 민중적이라는 성격에 기초하고 있음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인간상의 변화에 관심이 지대하였던 디킨즈는 사회개조는 인간 개조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는 전제아래 생명력이 깃든 영혼과 상상성에 의한 개선을 강조하였고 그것은 바로 교육문제와 노동과 같은 현실적 사안을 비중있게 다룸으로써 하층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민중적 공감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어려운 시절』을 사회문제 소설로서보다는 인간성회복과 내적 인식변혁을 꾀한 작품인 것에 주안점을 두고 디킨즈가 제시하는 인간적인 삶의 가능성과 휴머니즘 구현이라는 주제로 다루고자 한다. 특히 빅토리아 사회의 허상이 파생시킨 공리주의에 의해 상실 되어가는 인간성 및 생산의 기계적 매카니즘에 의한 도구로 전락해 버린 당시 노동자의 소외를 작중 주요인물들을 통해 진단해 본 후 디킨즈가 궁극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인간성 및 도덕성의 인식 변화를 통한 이상적 인간상의 구현에 이르는 주제적 사안의 분석을 통해 그의 내적 개혁성이 어떻게 시도되고 발현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II

계산적 수치에 의존하고 형식과 합리성의 원칙을 강조하여 영국 빅토리아조 시대의 정신적 주류를 이룬 공리주의 철학은 『어려운 시절』의 배경이 되는 코크타운(Coketown)이라는 도시를 지배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인간을 경제적 단위, 통계적 수치로만 생각하고 인간의 쾌락과 고통도 수량적 측정을 통해 해결하려 하려는 논리적 비인간성을 조장하는 잣대로 작용하는 이 공리주의는 토마스 그래드그라인드(Mr. Thomas Gradgrind)를 통해 정면으로 다루어지고 있

다. 그가 존중하는 '사실'이라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제외하는 것만이 아니고,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라도 공리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일체 배격하는, 매우 편협한 기준에 의해 설정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능률과 합리성의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인간 경험의 전부는 무시된다(김종철 131).

이렇듯 편협한 합리성에 기초한 공리주의의 표상인 그래드그라인드는 결과적으로 그의 주변인물이 겪게되는 비극적인 결말에 원초적인 구실과 원인을 제공하여 인간성 상실에 대한 요체를 이루고 있다. 생명력을 상실한 채 평생동안 공리주의의 반려자로 예측되었던 그래드그라인드 여사(Mrs. Gradgrind)가 결국 쇠약한 심신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수치적으로 완벽했던 그의 딸 루이자(Louisa Gardgrind)의 결혼생활이 끝내 유지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인간성은 그저 간단한 산술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2)공리주의 교육은 그의 아들 톰(Thomas Gradgrind)을 타산적 이득만 챙기려는 속물적 인간으로 만들어 급기야 인간성파괴라는 극단적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디킨즈는 이와 같은 일련의 비극상의 점진적인 표출을 통해 그래드그라인드가 표방하는 공리주의의 빗나간 사실 교육의 잔혹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기계적 현상과 수치의 개념만을 고수하고 있는 왜곡된 공리주의의 합리성은 코크타운의 이미지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산업자본주의의 경제적 합리성에도 정확히 대응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즉, 공리주의가 개인의 무한정한 이익추구를 정당화하는 자유방임주의와 합세하여 시장의 원리와 합법적 타협을 하게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체제적 모순을 등에 업고 착취의 기반을 정당화하는 변질된 공리주의의 경제논리가 충실히 작용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코크타운의 기계적 황폐상과 이기적 상업성을 극명하게 상징화하기 위해 디킨즈는 인물 자본가 바운더비(Bounderby)를 창조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내세우는 금전적 이해관계가 기계적 합리성 및 계산성과 맞물려 산업사회의 극단적으로 전형화 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디킨즈는 지배층이 부르주아계급의 포섭과 타협을 시도함으로써 그들의 유지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당시의 새로운 지배형태의 영국사회의 특징적 면모를 면밀히 포착하여 작품에 반영하고 있다. 『어려운 시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빅토리아조 타협(Victorian Compromise)(백낙청 51)과 공리주의의 절묘한 혼합은 당시 지배구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추악한 이기주의의 한 단면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성공을 하고 있다(Leavis 253).

디킨즈가 이 작품을 통해 의도했던 비판의 초점은 지성인이자 국회의원인 그래드그라인드로 대변되는 당시 공리주의자들이 현실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지양한 채 탁상공론에만 머무르고 노동문제를 단순히 회피해버리는 모습을 드러내어 변질된 공리주의 철학을 꼬집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개혁작업을 착수하고자 하는 개혁가들의 노력 자체를 디킨즈가 간과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공리주의 개혁가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래드그라인드와 같이 노동문제의 실상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채 산술적 계량화를 기준으로 문제를 단순히 처리해 내고 있는 무책임함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디킨즈는 그래드그라인드가 추구하는 사회문제의 해결방도를 모색하고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푸른 방’을 통해 당시 개혁가들의 이와같은 빗나간 합리성을 문제삼고 있다.

그의 방은 푸른 표지의 의회보고서들이 가득한 푸른 방이었다... 마술에 걸린 바로 이 방에서 가장 복잡한 사회문제가 계산되고 정확한 합계가 나오며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마치 천체관측소가 창문하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듯이, 그리고 그 안에는 천문학자는 별들의 우주를 펜과 잉크와 종이만으로 배열할 수 있다는 듯이, 그래드그라인드 씨는 그의 관측소 안에서 자기 주변에 들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길 하나 던질 필요 없이 그들의 운명을 석판 위에 결정짓고, 한 개의 작고 더러운 스폰지 조각으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 낼 수 있었다.(85)

그래드그라인드의 목적이 올바른 정의와 양심의 인도적 구현으로 비롯되는 개혁이 아닌 오로지 능률과 완전한 정치, 경제성의 인식 확립(341)이라는 톰슨(Thompson)의 지적처럼 그의 개혁성은 본질을 외면한 지엽적 현상의 원리로서 모든 현실을 대체해버리려 하는 극단적 합리성을 내포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급함의 오류로 왜곡되어버린 공리주의는 디킨즈가 일관되게 이슈화하고 풍자했던 주제로서 극단적인 합리성에 치우친 정책의 기만함을 뜻하는 것이다. 간략히 말해, 『어려운 시절』에서 공리주의에 대한 디킨즈의 비판은 결국 공리주의 개혁가들의 그 열성적인 사회개선의지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의견의 수렴을 거부함으로써 인간을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인 틀에 구속하여 민중생활의 비참함을 가중시키는 왜곡된 공리주의적 개혁활동을 겨냥한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어려운 시절』은 자본주의의 또 다른 축인 노동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루면서 사회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노동문제를 다룸에 있어 개별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은 스티븐 블랙풀(Stephen Blackpool)이다. 그러나 그가 작품 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당시 노동자의 전형으로 형상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많다. 작가가 자본주의의 생산의 메커니즘에서 인물을 직접 다루기를 회피하고 주변계층의 생활을 통해 노동문제에 접근한 것은 작가가 민중의 주체인 생산적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끝내 무시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특히 산업 도시의 전체적인 폐해와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의 모습은 열심히 그리면서도

구체적인 노동환경이나 공장내부의 실제 삶에 있어서는 언급을 자제한 한 것은 스티븐을 정직한 노동자의 특징적 예라기 보다 극적으로만 완벽한 모습일 수밖에 없었다(Ford, 47). 또한, 작가는 인간성이 열악한 선동가로서 슬랙브리지(Slack-bridge)를 창조하여 배타적인 독재자의 인상을 심어주어 노동자의 면모를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이기적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는가 하면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 역시 동료의 곤궁과 어려움에 인색하고 단지 군중심리에 의해 맹목적 추종만 하는 우매한 군중의 이미지로 치부하고 있다.

작중인물의 성격 형성에 있어 디킨즈의 이러한 다소 왜곡된 처리방법은 단순히 노동운동에 대한 그의 편견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차티스트 운동의 쇠퇴이후 보인 소규모 노동운동의 활성화가 노동자의 여건과 권익신장의 면에서의 성과가 전무했으며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한계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디킨즈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요구가 관철되지는커녕 오히려 노동자 편의 상황만 더욱 나빠질 뿐이라는 현실의 한계를 직시함으로써 그가 당시의 노동운동에 낙관적인 기대를 걸 수 없었던 것이다.

노동자들이 처한 당시의 비참한 상황과 그들의 노동운동에 관한 당시의 귀족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는 『어려운 시절』에서 스파시트부인(Mrs. Sparsit)과 빗쩌(Bitzer)가 주고받는 대화에 잘 반영되고 있다.

“연합한 공장주들이 그 따위 계급의 결속을 허용하다니 몹시 유감이군.” 스파치트 부인은 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그녀의 코를 더욱 매부리코로, 눈썹은 더욱 반원형으로 만들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부인,” 빗쩌가 말했다.  
 “공장주들은 서로 연합해서 다른 일손과 연결된 일손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반대해야 해.” 스파치트 부인이 말했다.  
 “그렇게 해왔지만 오히려 실패했지요.” 빗쩌가 대답했다.  
 “.....다만 일손들은 제압되어야 하고 이 일을 딱 부러지게 수행할 때가 도래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지.(102)

스티븐이 지니고 있는 성실성과 비타협적인 정직성과 같은 미덕은 인물적 결함을 덮어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 열악한 현실의 희생자로서 죽게되는 마지막 장면까지 살아 움직여서 독자에게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독자에게 호소력이 있다. 이러한 그의 인간애를 고려해 볼 때 그가 노동문제에 대한 의식의 한계를 드러내다기 보다는 충격적 현실을 완화시켜 독자의 거부감을 줄이려는 작가의 배려이자 사회의 총체적인 부조리를 작중인물의 내면적인 갈등을 통해 좀더 노동자 계층에 대한 공감을 얻고 인식의 각성을 이루고자하는 디킨즈의 고심의 결과로 이

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김현숙 221).

노동운동에 급진성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마침내 결말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플롯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은 노동자의 전형을 회복하고 자본가에 대항하여 민중의 고통을 항변하여 자본가의 자성을 촉구하는 능동성을 띠기도 한다. 또한 슬렉브릿지 같은 노동조합선동가에 의해 잘못 대변되고 있는 전체 노동문제의 핵심에 대한 오도의 위험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시도는 그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최선의 개혁의지이다.

사장님, 문제를 만든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킨 게 그들은 아니에요. 제가 그들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그들 편들 이유가 제게는 하나도 없습니다-그들에게서 고객을 빼앗지 않고 고객에게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꿈꾸다는 건 쓸데없고 무망한 노릇입니다....

도시를 둘러보세요 - 겉으로는 부유하게 보이지요 - 그 다음에는 여기서 살도록 끌려와서 실을 자거나 보풀을 세우거나 하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 평생 같은 일만을 하면서 그럭저럭 생계를 꾸려 나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집에서 지내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연에 따라 얼마나 똑같이 살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공장이 매일 어떻게 굴러가는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중착지인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공장이 우리를 얼마나 혹사시키는지 살펴보세요...어째서 사장님들은 항상 옳고 노동자들은 항상 그를 뿐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성이라곤 조금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지 한번 따져 보세요. 해를 거듭하고 세대가 바뀔수록 어째서 이런 일이 점점 커졌고 광범위해졌으며 심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이걸 보고서도 엉망진창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외계층의 억압과 빈곤에 대한 스티븐의 동정과 이해에서 비롯되는 디킨즈의 개선의지는 단지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외만을 문제삼은 것이기 때문에(김현숙 229) 급진성이 수반되지 않았다 하여 그 개혁성이 실패로 돌아갔다 선불리 단정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스티븐의 소극성이 암시하는 개혁성은 작품의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말 그대로 '어려운 시절'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민중적인 공유를 통해 계속적인 사회적 개량이 이루어져야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가능성의 여지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낙관적 비전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III

근본적으로 인간의 노동과 생활자체가 인간성의 온전한 발현을 복돋우는 생명

력에 찬 것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디킨즈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자본주의에 지배되지 않는 조화로운 인간성에 기초를 둔 산업조직을 지향하고 있다. 편협한 형식적 합리성과 착취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 코크타운의 황폐상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작가는 공리주의의 합리성을 초월하는 진정한 가치체계 의한 기존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재조정을 필연적으로 여기고 있다. 디킨즈는 전체적인 과정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소외를 아우르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도덕성이 전제된 일종의 열린 세계에서 의사소통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어려운 시절』을 통해 피력한다. 이런 그의 잠재적 개선의지는 자본주의의 형식과 합리성에 얽매인 범위내에서는 시도자체가 무의미하며 또 다른 코크타운을 생성해낼 악순환을 반복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주체가 된 움직임과 자본가들이 해야 할 일과 가진자들의 자각을 동시에 요구한다.

스티븐이 바운더비를 찾아가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노·자간의 갈등의 본질을 지적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장면이다.

“사장님, 무식하고 천한 제가 이 모든 사태를 개선시킬 방도를 이 신사분께 말할 순 없지만 무엇이 개선시킬 수 없는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강경수단이 개선시키지는 못합니다. 승리를 거두고 정복해서는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한쪽만을 부당하게, 항상 그리고 영원히 옳다 하고 다른 한쪽은 부당하게, 항상 그리고 영원히 틀리다 해서는 사태를 결코, 결단코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내버려둔다고 개선되지도 않을 겁니다. 모두 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이 엉망진창에 빠져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내버려둔다면 그들은 그들이고 사장님은 사장님이요, 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시꺼먼 세계가 놓여 있는 거지요. 그 세계는 이런 불행이 지속되는 만큼 길게 존재할 수도 있고 짧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많은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서로를 감싸주는 사람들에게 - 제 좁은 소견으로는 이 신사분이 여행하면서 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만 -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그리고 기꺼이 다가가지 않으면 태양이 얼음으로 바뀌는 날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노동자들을 동력으로만 생각하고 그들이 사랑이나 취미도 없는, 추억이나 취향도 없는, 지치거나 희망을 품을 영혼도 없는 산수 숫자나 기계인양 다루어서는 -만사가 조용히 진행되면 노동자들은 아무 것도 원하지 않은 존재인양 그들을 부려먹고, 시끄러워지면 양반님들과 접촉하는데 인간적인 감정이 부족하다고 그들을 비난해서는 - 지구가 끝장날 때까지도 사태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사장님.”

노동문제에 피력된 디킨즈의 혁명성은 명확성을 띠지 않는 항상적인 것이며 건설적 지침이나 사회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닌 막연한 감정적 인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옹호하는 바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정신의 변화를 강조하는 내적 성향이다(Orwell 33). 이렇듯 인간의 영혼의 기저에서부터 각성을 촉구하는

디킨즈의 의식전환의 강조는 디킨즈가 작품에 일관되게 추구하는 '상상'의 가치와 함께 인간의 노동에 항상 동반되어야 하는 유희적 요소인 놀이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목격한다. 그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여흥의 생동감과 유희를 통한 활력을 잃어버리면 본연의 인간다움은 잔인하고 불모화되어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명제를 폄하다(Tompson 406-407). 단순한 기계에서 벗어나 상상을 기반으로 한 인식의 전환과 인간성의 해방을 실현하여 온기와 생명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디킨즈는 생각한 것이다.

꼭마단의 단장인 슬리어리(Sleary)의 유희강조 철학은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레드그라인드의 공리주의 생활철학과 대조를 보이면서 부각되고 있다.

“선생님 모두와 악수하십시오. 우리 가난한 유랑민들을 불쾌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재미있게 놀아야 합니다. 항상 공부만 할 수도 없고 항상 일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을 좋아하셔야 합니다. 현명한 일, 또한 친절한 일을 하십시오.

디킨즈는 이 공리주의와 자유방임사상체제가 공동체의 복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이면에는 인간적인 것, 자연적인 것을 왜곡하고 억압하는 빅토리아 문명을 근본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가 접근하는 바는 바로 사회의 병폐와 부조리를 관찰하고 연구하여 비극적인 한계를 파악하여 삶을 원점에서 바라보아 인간성을 회복하는 말 그대로 근본적 실천주의이다. 당대현실에 대한 디킨즈의 통찰의 깊이는 작품에 유희적으로 드러나는 실천적 휴머니즘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것은 다시 깊은 사랑과 형제애를 기반으로 하는 창조적 예술가로서의 민중적 면모를 일깨우는 내적 개혁성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개혁적 시도는 작품 속에 제시되는 사실교육에 의해 부품으로 전략한 삶을 과감히 거부하고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여 감상과 상상을 통한 인간성을 추구하는 피지배계층의 결연한 의지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디킨즈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 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의 중심실체의 외곽에 자리잡고 있어 공간적 격차를 유지하여 일종의 대안이 되는 어떤 것을 취하게 되고(Holloway 159) 그것은 바로 죽음과 폐쇄적 이미지로 등장하는 코크타운에 항거하는 생명력을 지닌 꼭마단으로 형상화 되고 있다.

작가가 내리는 사회의 부조리와 병리현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생명력과 창조력을 대표하는 인물인 씨지(Sissy)의 상상과 감성의 이미지에 준거하고 있으며 그녀의 존재에 대한 모태는 바로 꼭마단을 통해 일차적인 구심점을 마련한다. 코크타운의 불모성 비극적 이미지와 일관되게 대립과 갈등을 빚으며 지탱해온 꼭마단의 공동체적 이미지는 작품의 종반부로 접어들면서 작중인물들의 심판을 가하는



주된 모티브로 작용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모범상을 제시하여 디킨즈가 주장하던 도덕적 성숙에 의지한 결말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곡마단이 생생해내는 생명력은 씨시의 작중의미로 실현되고 인간적 친절함과 결부되어 따뜻한 인간애 공유와 통하기 때문에(Leavis, Dickens 256)곡마단이 소유한 활기 넘치는 인간가치는 디킨즈가 추구한 큰 주제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바로 자율적인 삶의 창조적 지속과 확대이며 자발적 능동성에 기초한 삶의 가능성 인식이다. 그래드그라인드가 바운더비가 씨시의 부친을 찾아 곡마단원이 묵고 있는 술집에 왔을 때 모여든 곡마단원에 대한 묘사이다.

두세명의 잘생긴 젊은 여자들이 있었고, 두세명의 남편들, 두세명의 어머니들, 그리고 필요할 때 요정연기를 해내는 여덟내지 아홉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중 한 가족의 아버지가 커다란 막대기 끝에서 다른 가족의 아버지와 균형을 유지하면 세 번째 가족의 아버지가 토대를 이루어 두 아버지와 함께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통 위에서 춤을 추고, 병 위에서고 칼과 공을 받고, 세면기를 빙빙 돌리고...어머니들은 모두 느슨한 철사와 팽팽한 밧줄 위에서 춤을 추고 병위에 서고...그들의 집안일은 조금도 정돈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들의 학식은 다 합해봐야 어떤 주제이든 초라한 글자하나 나올 뿐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놀랄 만한 부드러움과 어린애다움이 있었고, 어떤 종류든 약삭빠른 교활한 일을 하기에는 특별한 부적합성이 있었으며, 서로서로 돕고 동정하려는 지칠 줄 모르는 열성이 있었다.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든 그들이 지니고 있는 나날의 덕성만큼이나 종종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이었고 또 언제나 관대하게 해석할 만한 것이었다(31).

씨시를 포함한 곡마단원이 보여주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날의 덕성들’(31)은 사회적 현실밖에 동떨어져 존재하는 자질이 아니고 사랑과 친절 같은 가장 소박한 인간적 면모들이 민중문화의 실제적 경험 속에서(Williams 55) 디킨즈가 인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곡마단의 가치는 작품의 구성상 작품의 모든 스토리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작품전체에 활력을 주고 설득력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곡마단으로 상징되는 인간정신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가치와 이미지는 서술적 묘사의 측면에서 아이러니 하게도 지배층의 무의식적인 수용으로 더욱더 온당함을 증명 받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어 바운더비는 ‘늦쇠로 된 트럼펫 같은 목소리’로 자수성가를 계속 떠벌리며 자랑을 늘어놓기 일쑤이다. ‘뜨내기나 줄타기 곡예조차 할 수 없어서 맨땅에서 춤을 추곤’ 했지만 굳은 의지로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갔다고 자신의 성장기를 회고하거나 혹은 ‘50세가 되어서도 모자를 땀버린같이 두드리기도 한다.’(14-15) 이와 같은 곡마단의 행위로 비롯되는 비유적 이미지들은 피지배층의 내재한 인간적 가치에 대한 필수 수반사항임을 암

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곧 빅토리아조사회의 이중성과 물질적 안일에 의해 파생되는 노동자들의 숨겨진 정신적, 상상적인 삶(Andrews 71)의 갈망임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공리주의적 가치가 협동적인 교섭과 공동체적 인본주의의 소중한 토대를 기반으로 존립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역설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어려운 시절』에서 압제화 되어있던 변화의 움직임들은 절충과 타협점이 존재하지 않는 인물성격의 설정과 작품의 이분법적 대립구조로 비롯된 갈등을 계기로 점차 가시화 되고 있으며 그 증폭된 개혁의 의지는 끝내 극단적 표출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된다. 완벽한 합리성으로 성사된 결혼생활을 참다못한 루이지가 폭우에 온몸을 젖은 채 집으로 달려와서 자신의 불행과 아버지의 교육과 철학관에 대한 날카로운 항변을 하게되고 그 이후 그래드그라인드의 결정적인 태도변화는 이 소설이 지향하는 가치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고 있다.

“아버지, 한편으로는 잠시도 충족된 적이 없는 굶주림이나 갈증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와 숫자와 정의가 절대적으로 통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열렬한 갈망과 매순간 싸우며 저는 자라났어요.”...  
 “아버지, 저는 항상 불행했어요, 싸울 때마다 착한 천사를 악마라고 거부하고 가루로 뭉개야 했으니까요. 제가 배운 지식은 모르는 것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경멸하고 한심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었지요. 인생은 곧 끝날 것이고 다투는 수고와 노력들일 가치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담한 저의 마지막 수단이었지요.

다행히 철저한 공리주의 신봉자인 그래드그라인드가 하트하우스와 바운더비와 달리 다소 인간성회복의 가능성을 유지한 채 내면적 각성이후에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인물로 제시되고 있음은 매우 희망적인 일이다. 그래드그라인드의 창조는 당대의 공리주의 사조에 박식한 사람의 이성적 결합을 추적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고 『어려운 시절』의 모든 부가적 환경은 그 결점을 추적하기 위해 실패를 조장하고 있다고 본 험프리 하우스(Humphry House)의 주장(45-46)은 비로소 그래드그라인드의 허점을 들추어내어 개선의 여지를 보임을 계기로 하여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드그라인드 가족들의 극적 변화들은 왜곡된 사회가치체계에 대항하는 씨지의 천진함과 순진한 믿음이 발산하는 참된 창조력과 실천적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영향력이 서서히 점증하여 (Leavis, Dickens 262) 점차 그 세력이 가시화 되어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회를 계량시키는 요소는 기술이 가져다주는 물질적 건설을 통한 혁명이 아니라 건실한 공동체의 인간화교육을 통한 인간내면의 각성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개혁이라는 디킨즈의 확고한 신념이

다. 그레드그라인드의 공리주의적 규칙과 합리성의 신조를 무너뜨린 것은 어떤 다른 철학이나 조직에 의해서가 아니라 씨지라는 한 순수한 소녀의 인간적 본성에 의해 굴복하고 만다는 사실이 이 모두를 대변해 준다.

씨지의 덕성에서 기원하는 이러한 잠재적인 개혁성향은 그릇된 사회제도를 조장하는 지배계급을 직접 찾아가 대면하기도 하는 자발적 능동성을 띠기도 한다. 루이자에 대한 연민과 애정으로 악한 하트하우스를 찾아가 준엄하게 꾸짖고 떠나가라는 그녀의 당찬 행동은 어떠한 수단을 통해도 통용이 될 것 같지 않은 정직함과 대담한 용기가 악당의 존재가치를 상실케 한다. 씨지에게서 받은 인상에 대한 하트하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를 찾아온 사람의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게 말하는 태도와 허식 없는 용감함, 모든 술책을 제쳐두는 정직함, 찾아온 목적에 진지하고 조용하게 매달리면서 자신은 전혀 돌보지 않는 자세, 이 모든 것이 그가 쉽사리 한 약속을 믿는 씨지의 태도와 합해져서, 그로서는 경험해본 적도 없으며 보통 사용하는 수단은 통할 것 같지도 않은 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207)

사랑과 관용, 애정이라는 인간애로 무장한 씨지의 덕성은 정의로운 사회를 대표하기를 자처하는 폐쇄적이고 위선적인 지배계층에 대해 대항하는 능동적인 비판자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주도될 수밖에 없는 혁명의 필요성을 은연중에 내비침과 동시에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는 배타적인 부르주아의 내면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백만명이 살고 스물 다섯명만이 길에서 죽는 산술적인 통계수치에 대해 고통을 죽는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별 관심이 될 수 없다(51)'는 씨지의 자세는 공통된 미덕으로서의 인간애를 바탕으로 국가의 부와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기존의 사고를 거부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재설정 하려는 진보적 개혁가로 보여지기까지 한다.

『어려운 시절』에 나타나는 사랑과 친절, 동정심, 연대감,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순진성 등의 민중문화의 실질적 원천을 이루는 곡마단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치들은 자본주의적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빛나간 공리주의를 계도하는 조정자적인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디킨즈는 이러한 민중의 생활과 노동의 본질적인 위기를 당대의 교육에 연결하고 비인간적인 산업조직의 기초로서 작용하는 공리주의 대해 총체적인 비판을 가함으로써 당대의 인간성 상실의 현상을 근원적 입장에서 진단하였다.

## IV

작중인물의 비극과 희생의 근원적 원인을 인간의 도덕성 타락이나 인간성 상실로 진단한 디킨즈는 상실된 내적 가치의 회복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비로소 그래드그라인드 가족의 각성에 의한 결말로 마무리 지음으로써 가능성 있는 삶의 비전을 열어놓았다. 디킨즈는 극도의 합리성과 이기주의로 횡포를 자행하는 부유층의 모든 가혹성과 무관심의 비인간적 조건들을 사회조직체의 제도적 속성의 원인으로만 보지 않고 양심과 인식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인적 고려의 결핍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감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오로지 이성과 사실에 의해 모든 지배를 하려는 공리주의의 왜곡된 교육과 인간관계에서 야기된 철저한 개인주의 사고방식이며 코크타운을 통해 암시된 판에 박힌 기계적 생활반복과, 속물적인 소득경쟁에 조장되어 온 인간성 상실이다. 디킨즈는 이러한 사회의 모순상을 다룸에 있어 단편적 제도개선의 개혁방안들이 인류를 구제할 것이라는 급진적인 사상을 과감히 배격하고 개인의 인식변화로서 서서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그 극복의 수단으로는 인도주의적인 사랑, 관용을 제시하여 근본적 관점의 인본적 정신의 강조를 촉구하였다.

삶의 구체적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자기 시대의 모순을 공격하고 민중의 활력과 에너지를 열망했던 디킨즈는 『어려운 시절』에서 그 주제의 깊이를 낙관적 미래상을 잠재시킨 형식속에서 처리함으로써 삶에 대한 가능성을 실감 있게 제시하는 뛰어난 작가적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는 서류상에 표현된 피상적이며 계산적인 방법으로 국가와 사회제도를 이상화해버리는 현실주의자들의 오만함을 준엄하게 질타하고 자발적인 자기혁신의 노력에 근거한 사회제도의 개선만이 해결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 Bibliography

### I. Works

Dickens, Charles. *Hard Times*, Harmondsworth: Penguin, 1854. rpt. 1994.  
『어려운 시절』. 장남수 역. 서울; 푸른산, 1989. 개정판 1994.

### II. Essays

Andrews, Malcolm. *Dickens on England and the English*. New York; Barnes & Noble, 1979.

- Ford, George H. Lane, Lauriat Jr. Ed. *The Dickens Critics*. 1961: rpt.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72.
- Holloway, John. 'Hard Times; and a History and a Criticism.' *Dickens and the Twentieth Century*. Ed. John Gross. and Gabriel Pearson.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2.
- House, Humphry. 'A Novel of Sociological Argument' *Hard Times, Great Expectations and Our Mutual Friend*. Ed. Norman Page. Basingstoke, London: MacMillan, 1979.
- \_\_\_\_\_. *The Dickens World*. 1941; rpt. London: Oxford Univ press. 1960.
- Karl, Marx. *The Marx-Engels Reader*. Ed. Robert C. Tucker Norton, W. W. & Company 1978.
- Leavis, F. R. and Q. D. *Dickens the Novelist*. 1970. rpt.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2.
- Leavis, F. R. *The Great Tradition*. 1948 rpt,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48.
- Orwell, George. *Essay on Dickens in Critical Essay*. Dickens' Hard Times; The Romance as Radical Literature. Robert E. Lougy.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Hard Times. Ed. Harold Bloom. Yale Univ Press. 1987.
- Thompson, E. P.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New York: Vintage Books, 1963.
- Williams, Raymond.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58.
- 김종철, 『어려운 시절의 민중성』, 백낙청 편, 『서구리얼리즘 소설연구』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2,
- 김현숙, 『디킨즈 소설의 대중성과 예술성』서울: 한신문화사. 1996
- 백낙청, 『디킨즈 소설 속의 빅토리아조 신사』, 19세기 영국소설연구, 한국영어영문학회 편(서울; 민음사, 1981

**■ Abstract****Charles Dickens' 'Intended Reform' depicted in '*Hard Times*'**

Park, Jung Gil · Kim, Ki Mok

The industrial revolution reached its peak in England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and changed the whole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religious condition. The works of many major Victorian novelists reflect their society's responses to the mechanistic world view by symbolizing the characters in order to reveal and criticize its social ills.

Charles Dickens's '*Hard Times*' successfully exposed the danger of a social system of falsely oriented utilitarianism that caused the alienation of human beings. In describing characters and attacking governmental systems that came into being in the early parts of the century in the Victorian age, Dickens advocated the importance of changes in peoples' awareness for achieving a better society and constantly pursuing the real sense of humanity in '*Hard Times*'

Thus, as an attempt to reaffirm the literary values of Dickens's works, this study, instead of dealing with the criticisms of '*Hard Times*' as an industrial novel itself that have often been made, mainly examines the author's 'intended reform' particularly focusing on elements of spiritual life and human love embodied in this work, which will encourage people to change themselves from the bottom of their hearts. By making deep analysis on the characters and relating them to the industrial society that is programmed to care only for materiality and statistical values, it discusses the distorted utilitarianism influenced by the laissez-faire spirit, ending up generating pains and alienations of industrial workers.

Dickens warns that such inhumane social structure of industrialism and materialistic trend can only be cured by the human interaction and humanism rather than superficial political radicalism.